

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 II

The Bible has the secret that the human body does not die

Hello, today, following last week, I would like to talk with you under the title of the Bible has the secret of the human body not to die. The point of the Bible is to predict eternal life.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의 포인트는 영생을 논하는 것입니다.

The word of the Bible is referred to as the word of God, but because most people have forgotten that it is the word of eternal life, this person, today, gives you a sermon under the title of "The Bible has the secret of the human body not to die." 성경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일컫고 있지만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고로 오늘 이 사람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Faith is a gift from God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In the Bible, it is written that we shall be saved through faith. However, some people misunderstand and teach faith as human belief. It is written in Ephesians 2:8 that faith is a gift from God. Therefore, faith is a gift from God and cannot come from a human. 성경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Because the Bible says that we shall be saved through the gift from God, forcing people to believe is wrong; it is the work of those who do not know the Bible.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이러한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처사입니다.

Faith is the gift given by God. Then, what is the gift that God gives to people? That is eternal life. God gives the immortal life as a gift. Therefore, eternal life itself is faith, and faith itself is eternal life.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죽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 자체가 영생인 것입니다.

What is eternal life? It is to be not dying. In order not to die, life must overcome the power of death. It doesn't make sense to say that life loses the fight against death and to be not dying. 영생은 바로 무엇인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사망의 권세를 이겨야, 사망을 이겨야 죽지 않는 것이지, 사망을 못이겨 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Therefore, the Bible says that we shall be saved through faith, a gift from God who has won the fight against death. But today, no one knows it correctly. 그리고 성경은 사망을 이겨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오늘날 바로 아는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The believing heart of a human sinner cannot become faith 인간 죄인이 믿는 마음은 믿음이 될 수 없다

Therefore, God's gift is the victorious Spirit that overcomes death, the victorious Spirit of God, and the victorious heart of God. God's heart that overcomes death. The heart of God who overcomes death is the faith that gives eternal life, so it cannot be the believing heart of human sinners.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사망을 이기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옵니다.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생을 주는 믿음이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죄인의 '믿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1987년 10월 4일 뉴욕 한국교포방송사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총 4회 중 2회차 방영된 조희성 총재님의 설교 장면

Therefore, faith = eternal life, eternal life = salvation. Therefore, judging from the results that give salvation, it becomes faith. If faith does not provide salvation but lets us die, considering the passage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it becomes "man dies through faith", so it is unbiblical.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영생=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는 결과를 말해서 믿음이 되는 거지, 구원을 주지 않고 죽는 것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롬6:23)"는 말씀에 해당되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것은 비성경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faith in those words, "salvation through faith", "eternal life through faith", and "enter heaven through faith", indicates God's heart, which is the gift from God, the heart that wins over the devil. Hence, it is saying that eternal life through the heart: the God's spirit of defeating the power of death, defeating the devil and defeating the I.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 사망을 이기는 마음! 바로 사망을 이기는 마음으로 바로 영생을 얻고, 바로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Bible has so much detail and accuracy that you must overcome I, the devil, and death to gain eternal life. However, since no one understands these words of the Bible, people in this world continue to die today. 그리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세밀하고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는 고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Faith is a gift from God. You must receive the Spirit of God that is the gift from God. Even among the Spirit of God, it must be the spirit that overcomes the devil, the spirit that kills the devil, the spirit that overcomes I. That's what faith is. 그러나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고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영 중에도 마귀를 이기는 영이 아니라 마귀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영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Nowadays, with the question of what faith is, people search the Bible in various ways and talk about it. Today, this man says that faith is the heart that overcomes the devil, and the heart that overcomes I, the heart that overcomes death. God in you has to overcome your I, overcome the devil,

overcome death, so the victorious God in you live forever and ever. Therefore, faith is the heart of God. 그리고 오 늘날 믿음이 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마음! 나를 이기는 마음! 사망을 이기는 마음이 바로, 나를 이겨야 마귀를 이겨야 사망을 이겨야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고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Regard anyone as my body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What is God's heart? As this man said last week, "regard anyone as yourself." It is a sin not to regard anyone as my body.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The teaching of "regard anyone as my body" is the word for removing the self-consciousness of I, and it is the secret of forsaking myself. The foundation on which the self-consciousness of I can stand disappears.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는 말씀은 바로 '나라는 주체의 식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되고 '나'를 항상 버린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설 수 없는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Regard anyone as my body." If anyone is not my body or is a made-up theory, it will not be relevant. In fact, "regarding anyone as my body" is not only biblical but also is the exact core of "love your neighbour as yourself, love your enemies."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이, 사실이 아니요 비진리라면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 안 되지만, 사실은 누구든지 한 몸이라는 말씀은 성경적인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누구든지 다 한 몸이라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How could you prove that everyone is one body? Let's think about where we

bom: we didn't fall from the air. We are all made of mother and father's blood: mother and father were made of their grandparents' blood; grandparents were made of their great-grandparents' blood. When we keep trace previous generations, we find Adam and Eve's blood. 또한 우리가 누구든지 한 몸이라는 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어디서 태어났는가? 공중에서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고,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n, who would deny that all people on the earth are bodies made of God's blood? If so, we can only say that it is one blood. 그렇다면 온 지구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몸이라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 한 피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One blood is one body; therefore, to compare it to a tree, a tree trunk has many branches that stretch east, south, and north for six thousand years. It is the same as saying that a branch extending to the East regards the branch extending to the West as a different tree. Therefore we are one tree, one blood, one body. When all humanity regarded as one body, there will be no ground the devil's spirit can stand. 한 피라하면 한 몸이요, 한 몸이 한 피요,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한 나무의 줄기가 6천 년간 뻗어서 바로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뻗은 가지일 뿐이지,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서쪽으로 뻗은 가지더러 남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무요, 한 피요, 한 몸인 고로 온 인류가 한 몸처럼 여기게 될 때에 마귀의 영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6면에 계속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7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하다》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 비스가 산에 오르다

(8) 금수강산 한반도에 거할 이스라엘을 축복한 발람의 예언

(지난호에 이어서)
예언자 발람은 두 번째로 오른 산당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곱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어지와 숫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면서, "네가 비스가 꼭대기에서 눈으로 본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축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발람은 비스가 산 위에서 자신의 눈으로 본 단지파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거나 번덕부리는 일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으

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거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나니, 여호와께서는 아람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반역을 발견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이삭으로 옮겨지고 이삭의 하나님의 신이 야곱으로 옮겨지고 야곱에서 행방불명되었던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옮겨졌구나!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도다. 첨궐의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그 말 탄 자, 유다 왕 예수를 거꾸러뜨릴 것이다. 이는 여호와와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단지파에서 심판권을 가진 구세주가 나오심이라. 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느 단, 그들 조상의 이름 '단'을 그냥 부르지 않으니 단조로워, 임금 군(君)자를 붙여 '단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의 힘이 들소와 같고 단지파에서 천하장사 삼손이 나오리라. 아람을 해할 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제는 사람들이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하리도다. 이스라엘은 승리자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자라. 여호와께서 이긴 자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성령의 이슬을 내리는 저 이긴자는 산곡의 백합이요 만민 위에 뛰어나시는 구세주님이시라. 이긴자를 배출할 단지파는 바산에서 뛰쳐 나오는 사자새끼와 같도다. 이 단지파의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늪지 아니하리도다. 그러할 때가 오면 사망이 이긴 삼킨 바 되리라."

민수기 23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아람을 해할 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도다
24절: 이 백성이 암사자 같이 일어나고 수사자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늪지 아니하리도다

모암 왕 발락이 발람에게,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라고 말하였습니.

그러자 발람이 모암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암 왕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청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 꼭대기로 함께 오십시오. 행여 그곳이 여호와와 눈에 들어, 당신더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실 것만 같소!"* (다음호에 계속) 안젤라